

전북, K-푸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웃음꽃

1분기 농수산물 수출 1억3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마른김·냉동볶음밥 등 인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1분기 농수산물 수출 실적에 1억3,400만달러(약 1,866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8년간 연평균 13.8%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3년의 경우 세계 경기 불황 등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됐다.

올해 들어서는 전북지역 주력 수출식품인 마른김, 팻푸드, 김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하며, 작년 동기 대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공농식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75.7%인 1억1,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하였으며, 마른김(52.8%↑), 팻푸드(10.8%↑), 기타음료(20.4%↑), 곡류가공품(369.3%↑) 등의 수출액 또한 대폭 증가했다.

수산물과 신선농산물의 수출액은 각각 2.6%, 8.0%가 증가했으며, 수산물의 경우 마른김(54.3%↑), 바지락(180.6%↑) 수출이 증가하였고, 신선농산물은 옥수수가루(92.2%↑), 딸기(330.9%↑)가 증가하였다.

수출국별로 보면 일본, 미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사료, 고추장, 닭고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기타음료, 냉동볶음밥

등의 수출 증가로 11.9%, 태국은 김, 라면, 고추장 등의 수출 증가로 37.1%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추세에 힘입어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인 6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7년까지 9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024년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3개 분야 7개 사업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가별 거점유통망 활용 주력시장 공략 및 신수 수출국 개척, 신선농산물 수출 품목 육성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주-1기업(농가) 농수산물 수출기업 현장 방문상담을 통해 도내 수출 기업(농가)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국장 "K-Food의 글로벌 인기 추세에 힘입어 도내 매력적인 농수산물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발굴과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농수산물 수출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의사가운 반납하는 원광대병원 의료진들

원광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29일 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사가운을 반납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미래 웹툰산업 이끌 인재 키운다

2024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 공모사업 선정

전북자치도가 도내 웹툰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플랫폼 기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8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경남, 제주, 대전, 대구, 울산 등 총 6개의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1억5,000만원 등 총예산 3억원을 투입해 소재 발굴·기획, 각색, 배경·채색, 저작권·연재 계약 등 예비작가별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과 웹툰작가 포트폴리오 개발, 취업알선, 경력 컨설팅 등 예비작가들의 경력·경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웹툰은 영화, 애니메이션 대비 낮은 제작 비용과 디지털 제작방식으로 지역 어디에서도 창작이 용이하고, 웹툰작가 연령 구성은 30대 이하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도유망한 산업이다.

특히 웹툰은 소재를 활용하여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장르로 파생되는 이른바 OSMU(One-Source-Multi-Use)의 대표주자이자, 파생된 장르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춰 지역특화 작가 발굴 및 웹툰산업 저변 확대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웹툰캠퍼스를 운영 하고 있다.

현재 16명의 기성·예비작가가 입주

중이고, 협업작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화 웹툰 제작, 스쿨업교육 등 입주작가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웹툰 도민교육,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웹툰 체험특강, 웹툰 문화의날, 공모전 운영 등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 전주대학교에 웹툰문화콘텐츠학과가 신설되었고, 웹툰 캠퍼스 내에 플랫폼 연재 작가 11명 보유 등 문화·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웹툰 분야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웹툰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 투구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다양한 제약으로 안정된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 장애인공공일자리 사업에 25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900여명의 장애인에 다양한 공공일자리 유형을 제공한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 유형별로 △전일제 408명 △시간제 180명 △복합일자리 1,007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56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100명 △전북형 최종중장애인 공공일자리 140명 등 6개 사업에 1,891명이 참여한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4명을 증원한 140명의 최종중장애인에게 장애인 직업활동과 함께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올해 창업지원사업 '한눈에'

전북자치도, 창업지원사업 정리한 안내 책자 발간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을 담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창업지원사업을 정리한 안내 책자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사업 편람'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창업지원사업 및 협회·단체가 주관해 발간된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사업 편람은 도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편람은 115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과 도내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담고 있다.

편람 내 세부색인표를 통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3년 이내), 도약기창업자(3년~7년 이내) 등 성장주기별로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 대상사업은 붉은 선으로 표기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유형별로 △교육·멘

토링 △사업화지원 △시설·공간·보육 △투자유치 △관료·해외진출 △행사·네트워킹 △기타(지식재산권 확보,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 인건비, 운전자금 지원 등) 등으로 구분해 가독성을 높였다.

책자는 도내 주요 창업지원기관에 배부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PDF파일로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www.jci.or.kr)'에도 게시하여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이현서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과장은 "이 책자가 창업기업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는 지역 창업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수요자가 공감하는 창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병원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확진자 격리 권고 5일 → 증상 호전 후 권고 1일로 완화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됐다.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완화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 수준으로 일반의료 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다. 진단검사비는 PCR 무상지원에서 1만~6만원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치료제는 무상공급에서 1인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염대응체계는 별도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이명옥 전북자치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됐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